

김 운 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 이사
 by Kim Woon-Tae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

What kind of architect will you be?

얼마 전 업무관련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장지 독일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그리 낯설지 않은 여행이었다. 처음 독일에 가본 것이 1992년이었고 2001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가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의 방문과는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12일간의 출장기간동안 몇 명의 독일 건축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대화를 나눌 기회(물론 누군가의 도움은 받았지만)도 있었다. 외국유학을 경험하지 않은 나로서는 외국의 건축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그동안 책이나 잡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정도였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필자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항상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살지만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중에 이런 것이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필자와 피부색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틀린, 외국에서 건축사로 살아가는 필자 또래의 건축사들은 어떨까. 이번 출장에서 조금이나마 그 의문을 나름대로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서 만난 그들은 아주 진지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필자 혼자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매우 열정적이었고(건축에 대해), 친절했으며, 건축사로서 자부심 내지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질까"라고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어진다. 상황이 정반대였

다고 가정하고 필자를 평가해 보면, 필자도 그들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아마 똑같이 대학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비슷한 기간동안 건축실무를 했을 것이며,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를 가진 가장일 것이다.

지금도 필자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듯한데, 어떤 차이를 느끼는 건 아마도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과 필자는 대학교육에서 건축에 대해 교육받은 것과 공부한 내용이 조금 틀릴 것이라는 것과 졸업 후 건축실무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어떤 유형의 건축사들과 건축실무과정을 겪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건축을 선택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사실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 많은 고민을 해보질 않았다. 단지 열심히 노력하면, 선배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또래들보다 더 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이 있었고,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질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무경력이 쌓이면서 건축사면허도 갖게 되고,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게 되었으며, 아울러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날 기회도 생기고, 관공서를 드나드는 일도 찾아지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유형의 건축사 중 필자는 어떤 건축사가 되길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한다.

지난해 『ARCHITECT? : A Candid Guide to the Profession/디자이너로 자라기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사의 여러 가지 유형을 예로 들고 있다.

-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타고난 건축사 (운명적으로 건축사가 될 사람)
- 엘리트 건축사(개인적인 목표와 직업적인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환경에

- 서 태어난)
- 건축예술가(사회적인 배경이나 타고난 재능과 지성이 아니라 행동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 프리마돈나형 건축사(스스로의 평가로 자신을 받들며 존경한다.)
- 창조적인 공상가(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건축사(환상보다 현실을 선호하는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
- 실무 중심의 건축사(건물을 세우는 방법을 아는-즉 디테일 디자인, 자재, 시공방식, 시공과정에 관해 지식이 있는-건축사)
-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건축사
-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
- 경영인 또는 기업가
- 르네상스 건축사(예술가이자, 시인, 엔지니어, 사회학자, 경영인, 외교관)

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위에서 나열한 여러 건축사의 유형 중 '르네상스 건축사'가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다양한 재능과 기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서의 건축사가 되기를.

오늘날의 건축사에게는 복잡성, 불확실성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과 다양한 학문들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이상적인 건축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듯이 건축사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동작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르네상스 건축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건축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 건축사로

직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건축을 하는 이들은 공감할 것이다. 늘 공부해야 하고 갖추어야 할 지식은 많다. 그러나 경제적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하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축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그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며,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리라. 늘 미래를 생각하며 보다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과정의 한복판에 서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직업이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건축사는 엔지니어, 시공자, 사회학자, 개발업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훌륭한 건축을 창조하고 훌륭한 도시를 창조하는 그런 직업인 것이다.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독일에서 만난 젊은 건축사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누군가가 필자에게 어떤 건축사가 되길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르네상스 건축사'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평생 그렇게 되지 않을 지라도... ▣